

시조문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펼 펼 나는 새 ^{외로움} 외로이
 암수 다정히 노는데,
 외로울시 이 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가리

翩翩黃鳥(편편황조)
 雌雄相狎(자웅상협)
 念我之獨(엄야사독)
 誰其與歸(수기여귀)

선경경

수제: 경사
 +
 상형

이별에 따른 외로움

시조문

구간 등, 「구자가(龜旨歌)」

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구하구하)
 머리를 내어라. 首其現也(수기현야)
 내이놓지 않으면, 若不現也(야불현야)
 구워서 먹으리. 爇灼而喫也(변작야끼야)

시형: 머리 → 속눈썹

구조: 집안으로
 7월연백 2호

시조문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밀도
 몰다 이르고 어찌 잡니까.
 어느 기운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꽃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님아 기다리겠노라.

정적 평화.

시조문

처용, 「처용가(處容歌)」

파랑가(靑者婆郎歌)

[해설]

바라보매
달이
떠 산 언저리에
물기에
습이웁시 수풀이며,
갈 변에서
시달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나무 가지가 높아
떨지 못할 고실이며.

안민가(安民歌)

가뻘지 마니. 자식의 관계에 벗다른
식을 보살피듯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

한산유문

홍신언주사.

정서, 「정과정(鄭瓜亭)」

황금 연문

내 남을 그리워하여 우^다다니
산(山) 집동새 난 이춧하요하다
아니시며 거츠르산달 아으
잔월요성(殘月曉星)이 알으시리하다
낮이라도 남은 한^데 녀저리 악으
벼기터서니 뉘리시니잇가.
과(過)도 허날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멜릿 마려신자

살웃본서 아으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잇가?
(아소 님함 도람 들으새) 좌오소시)
낙구강연

한산유문

덕(德)으란 공바에 말좁고 복(福)으린 림비에 말좁고
덕(德)이어 복(福)이라 호놀 나수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正月)스 나랏그른 아으 어저 녹저 호놀디
누릿 가운데 나곤 문하 호올로 닐서
이으 동동(動動)다리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를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설 조시싣다

내다(지내다)

하다-~습니다.
하와이여.

내가 ^{암중}그리워하여 울고지내더니
산 집동새아 나는 (처기가) 버릇합니다
(참소가 전살이) 아니며 거침안들은 아!
천지신명이 아실것입니다
물이라도 임과 함께 살아가고싶어라 아!
(내게 허물이 있다) 우기시한 이는 숙국원습사?
(다미면) 잔월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꽃시광등의 모습입니다.
슬프도다 아! (아시라게은 유채)
암중 내를 벌써 잊으셨습사?
아아 임이여 (와유원) 돌려 (내 맘을) 들으시라
사랑해 하와이.

작자 미상, 「동동(動動)」

고전소설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3a 3 a 2 b3 3 a 2 ← 음을
 살어리/살어리랏다/청산(靑山)애/살어리랏다./
 멀위랑/매랑/먹고/청산(靑山)애/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리리 알라 → 후렴: '2. 0' → 가흥, 즐거움 흥

우려라 우려라 새여 지고 니러 우려리 새여.
 녀려와 시름 한 니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년 새 가년 새 본다 글 아래 가던 새 본다.
 임 무든 장날란 가지고 글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년 새 가년 새 본다 글 아래 가던 새 본다.
 임 무든 장날란 가지고 글 아래 가던 새 본다.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르란 또 었디 호리랏.

말리말리 알랑성 말라리 알라

어디랴 어디년 돌코 누리랴 마치던 돌코.

막리도 괴리도 업시 바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리리 알리

살어라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모자기 누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고싶다
 살리랏다
 살어리랏다 → 살리랏다
 -L 다 = 의문사 의미.

-나
 보았나
 -L 다 = 의문사 의미.

→ 외로움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 2. 0의 느낌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밭에 살고 있었다. 나이는 열여덟인데 얼굴은 말쑥하며
가면서도 글을 읽었다.
있다. 나이 열대여섯쯤 되었는데 맴서는 아려잡고 자수에
그들을 창천했다.

인간 본성.
최 처녀의 집 앞을 지나다 했는데 그 집 북쪽 담 밖에는
→ 사건의 계기.
있었으니 아름답게 온갖 꽃들은 활짝 피어 있고 벌과
파한 누가이 꽃술 지어에 은은히 보이는데, 구슬로 만는
있었다. 그 속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수를 놓고 있다가
차단 + 트인 경계.

시험하군지 안달아 났다. 그러나 그 집의 담장은 높고
과음으로 학교로 갔다. 그는 돌아올 때에 한 종이 한 폭
했다. 최 처녀는 시비 향아를 시켜 주워 보니 이 서생이

최 처녀는 그 사를 읽고 또 읽은 후 마음 속으로 기뻐하면서 자기도 송이 쪽지에다 짤마한 글귀를 적어서 담장
밖으로 던져 주었다.

“도련님은 의심치 마십사오. 황혼에 뵈기로 합시다.”

황혼이 되자 이 서생은 최 처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득 복숭이 꽃나무 한 가지가 담 밖으로 휘어져 넘어오면서
간들거리기 시작했다. 이 서생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땀술에 매달린 대광주리가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다.
이 서생은 그 중을 타고 담을 넘어갔다. 때마침 달이 동산에 돌아오고 그림자가 땅에 쏠려 맑은 향기가 사랑스
러웠다. 이 서생은 자기가 천천 세계에 들어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음은 은근히 기뻐으나 몰래
송어들고 보니 보발이 끝도났다. 그가 좌우를 살펴보니 최 처녀는 벌써 꽃편각 속에서 시너 향아와 함께 꽃을
찍어 머리에 꽂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서생을 보자 방긋 웃으며, 시 두 구절을 먼저
물었다.

도리(桃李) 나무 잎진 가지 꽃송이 탐스럽고,

원앙새 배개 위엔 달빛도 곱고나.

서생도 곧 뒤를 이어서 사를 읊었다.

이 다음 어찌다가 불초식이 샌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

최 처녀는 곧 낯빛이 변하면서 말했다.

“도련님 저는 애당초 도련님을 끝내 남편으로 구서 오래도록 슬기게 지내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는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소감도 걱정함이 있는데 대장부의 의기를 기차고
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뒷날에 구송의 비밀이 누설되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더라도 저 혼자 책
임을 지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녀는 향아를 시켜 방에 들어가서 술과 과일을 가져오게 했다. 향아가 떠나버리자 사방이 지마
히며 인적이라고는 없었다. 이 서생은 물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 곳은 저희 집 뒷동산에 있는 작은 누각 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무남독녀이므로 여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 이 연못가에 누각을 지으시고 시비와 더불어 화창한 봄을 즐기게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
께서는 여기서 떨어진 길숙한 꽃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웃으며, 근조리로 얘기해도 쉬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인은 술은 술을 따라 이 서생에게 권하면서 시 한 편을 읊었다.

부용꽃 푸른 물은 난간에서 굽어보고,

→ 봉우리 213

최서: (사랑 원)

→ 원앙, 도적작 (4장)
(인간본성)

원앙 213

를 따라 오셔서 두터운 정익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락> **최처녀 저항**

지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지은 누각(樓閣)에 올라가서
거역 되사 희미한 달빛이 등보를 비추 주는데, 낭하(廊下)
가까이 다가온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기 이상 사랑

2. 복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비현실적 표현)

를 애상했다.

충락>

이 옛날과 같았다.

거기에는 굳은 몇 덩어리와 새물 약간이 있었다. 그들은
각 오관산(五冠山) 기슭에 합장(合葬)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되니, 떠난 갔던 노복들도 또한 찾아 들었다. 이생은 이로
손익 진흥사(吉凶事) 빙문에도 문을 달고 나가지 않았으
를 보냈다.

도지때 밀려와서 처잡한 씨움터에.

물죽음 당하니 원망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흩이진 화골 그 누가 분여 주라,

피투성이 그 유혼(遊魂)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전쟁의 문로

→ 사육신!

슬프다 아내 몸은 무신(巫山) 건너 났을 수 없고,

깨진 거울 살리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노래 한 가락씩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견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黃泉)으로 갔으면 하오. 이제 무로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진서와 노복(奴僕)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遺骨)이 들만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 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절로
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써 장사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天性)이 순효(純孝)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떨겠소?"

여인은 대답했다.

"남군의 수명(壽命)은 아직 남아 있으나, 지은 이미 저승의 명부(冥府)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남군님께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미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구(未久)에 여인은 말했다.

"남군님, 부디 안녕히 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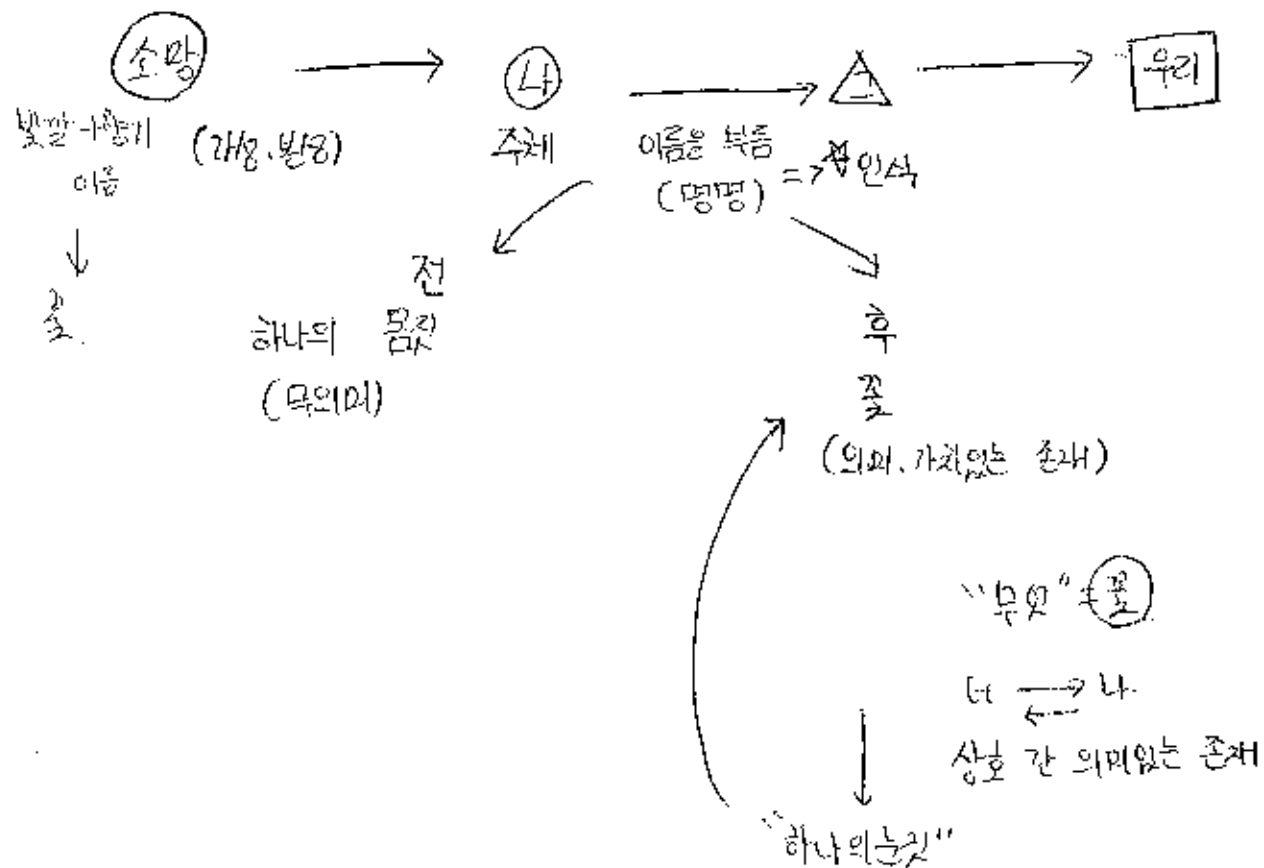
밀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 주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금오신화(金鰲神話)>

가약 ① 첫번째 → 부끄러움 → 결혼 → ~~부끄러움~~

김춘수, 「꽃」



박목월, 「만술아비 축문」

제사...

→ 아버지

상형 : 제사 (아버지 부재 → 죽음)
글X (탄소)

↓ 화자의 변화

현대시

박목월, 「만술아비 축문」

2학년 13 반 (4)번 이름 (이주영)

이 작품은 가난한 만술 아버지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축문에 관한 시이다. 만술 아버지는 '탄소', 즉 문맹이어서 제대로 된 축문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등장불도 없는 상 앞에 앉아 달로 중얼중얼 아버지께 낙문격으로 축문을 읊내고 있는 것이다. 만 그래도, 가난한 삼립이, 떠는 윤사월의 기혹한 보릿고개라시 상 위어는 저승길에 헤고프신 아버지에게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눈을 겨운 말을 건넨다.

1. 시구에 대한 이해

아빠요 아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다.
등장불도 없는 상 앞	대상에게 (격식)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들 통해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고종이 한 손이든 아버지 소금 줄어드려한	(거제적사물)을 제시하여 가난한 현실로 인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제사에는 소금에 밥이슬이 온다	제사를 통해 양자의 혼령이 (산자와 정성과 원로)에 감응하였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2. 특징

특징	표현(시구)	효과
직접도 아닌 사용	아빠, 알리지요, 당한겨요, 엄접다 등등	항문적
화자의 교체	1연 만술 아버지 청자 아버지 2연 만술 아버지의 영혼 또는 제3자 (만술 아버지를 지켜보는 이) 청자 만술아비	만술 아버지의 민청과 정성을 높이 평가
시어의 반복	아빠요 아베요, 놀러 놀러, 묵고 묵고, 느껴 느껴	화자의 애절한(=) 청사 강조
말 건네는 방식	아베요, 아베요...	대상과의 (친밀감) 표현
화자의 청자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드시고 가미소 윤사월 보릿고개	가난

3.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항문적